

에스더

에스더 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본서에 나타난 유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바사의 관습을 잘 알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바사에 살았던 유다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래서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 9:20 을 확대해석하여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라는 주장도 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

본서의 연대적 배경은 스룹바벨이 주도한 1 차 포로귀환과 에스라가 주도한 2 차 포로귀환 중간 시기로,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 궁에서 벌어진 유다 사람들의 구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에스더 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제사에 관한 기록도 없고, 구성도 소설 책과 같아 정경성의 의심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본서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로 인해 보석과 같은 책으로 간주된다.

노트

1. 아하수어로 왕이 다스리던 지방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였으며 모두 몇개의 지방이었나?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에 1:1)
2. 아하수어로 왕이 즉위한 궁 이름은? 수산 궁 (에 1:2)
3. 아하수어로 왕이 즉위한지 몇 년 만에 귀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나? 3 년 (에 1:3)
4. 왕의 잔치에 참석한 장수들은 어디서 왔나? 바사와 메대 (에 1:3) ➡ 바사는 메대를 합병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후 세워진 제국이다. 과거 메대 시절의 장수들의 참석을 특히 강조한 것이 흥미롭다. 에스라 노트 1 번 참조.
5. 잔치는 며칠간 계속되었나? 180 일 (에 1:4) ➡ 잔치에 같은 사람들이 계속 참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귀족과 지방관들이 돌아가며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6.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는 며칠간 계속되었나? 7 일 (에 1:5) ➡ 귀족들을 위한 180 일의 잔치에 비해 너무 짧았다.
7. 왕궁 후원 뜰에는 어떤 돌들이 깔려 있었나?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에 1:6)
8. 당시 왕후의 이름은 무엇이었나? 와스디 (에 1:9)
9. 아하수어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왕후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에 1:9) ➡ 남자와 여자는 가족끼리 집안에서만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바사의 관습이었다. 따라서 연회도 남녀 따로 하였다.
10. 왕은 몇 명의 내시를 왕후에게 보내어 초대하였나? 7 명 (에 1:10) ➡ 7 은 바사인들이 신성시한 숫자였다. 내시만이 궁 안의 여인들이 있는 곳을 출입할 수 있었다.
11. 아하수어로 왕은 왕후 와스디에게 어떤 요청을 하였나?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나아오라 (에 1:11) ➡ 왕후의 관을 쓰고 나오라는 것은 11 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 같이 단순히 미모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왕후로서의 위엄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여하간 와스디의 아리따움은 대단하였던 것 같다.
12. 왕명을 받은 왕후의 반응은?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 (에 1:12) ➡ 왕명을 거역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당시 바사의 풍습으로 여자들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남자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왕의 부름에 왕후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아하수제로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아닥사스다의 술자리에 왕후가 동석했었다 (느 2:6).

13. 왕명을 거역한 왕후에 대한 왕의 반응은? 진노하고 그런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다 (에 1:12-13)
14. 왕이 자문을 구한 현자들 즉 7 지방관들의 의견은 어떠했나? 소문이 퍼지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니(에 1:17), 왕후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보다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소서(에 1:19) →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조서를 전국적으로 보냈다고(에 1:20-22) 기록되어 있는데 왕후의 불복종을 공표한 것 같지는 않다. 와스디가 왕후 자리에서 쫓겨났는지 확실치 않지만 왕을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그의 미모는 그를 구하지 못하였다 – 노트 11 번 참조.
15. 에스더 1 장에 소개된 주요한 인물은? 아하수제로 왕
16. 모르드개는 어디에 살고 있었나? 바사의 도성 수산 (에 2:5) →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왔는데 모르드개가 바사의 수도인 수산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따라서 그의 부모들은 약 60 여년전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의 1 차귀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17. 모르드개는 바벨론 어느 왕 때 잡혀왔나? 느부갓네살 왕 (에 2:6) → 본문에는 모르드개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드개의 조상을 가리킨다. NIV 와 KJV 의 해당부분은 모르드개라는 이름이 아니고 'who'로 5 절에 언급된 그의 조상들을 가리킨다.
18. 모르드개는 유다의 어느 왕과 함께 잡혀왔나? 여고냐 왕 (에 2:6) →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으로 유다 19 대 왕 (왕하 24:8-12)
19. 모르드개의 삼촌의 딸의 이름은? 하닷사 곧 에스더 (에 2:7) → 하닷사는 에스더의 히브리 본명이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숨기라 하였는데(에 2:10), 아마도 그 때에 에스더라는 바사식의 이름을 붙여준 것 같다. 바사에서 유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었음이 틀림없고 모르드개는 그런 악점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20. 아하수제로 왕의 후궁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여자들은 얼마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여야 했나? 12 달 (에 2:12)
21. 에스더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비하일 (에 2:15) → 그는 모르드개의 삼촌이었다.
22.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촌수는? 4 촌 (에 2:15) → 4 촌 오빠인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친딸같이 보살폈다.
23. 왕후 와스디를 멀리하고(노트 14 번 참조) 몇 년 만에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나? 4 년 (에 1:3, 2:16) → 왕이 잔치를 베푼 것이 아하수제로 왕 제 3 년(에 1:3),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제 7 년(에 2:16).
24.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알게 된 음모는? 문을 지키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 (에 2:21) → 내시들이 지키는 문은 대궐 문보다 더 안쪽에 있는 왕의 침실 문이었다.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고위급은 아니지만, 최소한 후궁 뜰 앞을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를 알아볼(에 2:11) 수 있는 정도의 관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25.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개는 어떻게 했나?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 (에 2:22) ➡ 이 음모를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 두 사람을 처형한 후 이 모든 일을 궁중 일기에 기록하였다.
26. 에스더 2 장에 소개된 2 명의 주요한 인물은? 모르드개와 에스더
27. 아하수어로 왕이 지위를 높여주고 모든 신하들에게 그 앞에 꿇어 절하라 명령한 인물은? 하만 (에 3:1-2) ➡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하였으니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쯤 되겠다.
28. 하만은 어떤 족속 사람이었나? 아각 (에 3:1) ➡ 아각은 아말렉 왕의 공식 칭호(삼상 15:32)이다.
29.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나? 하지 않았다 (에 3:2) ➡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30. 왕의 명을 거역한 모르드개에 대한 왕의 신하들의 반응은? 왕의 명을 따르기를 날마다 권하였다 (에 3:3-4) ➡ 하만에게 보고하기 전에 얼마동안 권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모르드개가 아주 하급관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
31. 왕의 명령을 따르라는 신하들의 권면을 받은 모르드개의 반응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렸다 (에 3:4) ➡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께 만 절한다고 했을 것이다. 신하들은 그 말이 하만에게 통할지 보고자 하만에게 보고하였다.
32.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안고 절하지도 안한다는 보고를 받은 하만은 매우 노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였나? 모르드개 뿐 아니라 온나라에 있는 유다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 (에 3:6)
33.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어떤 방법으로 정하였나? 제비를 뽑아서 (에 3:7) ➡ 부르는 바사 말로 제비라는 뜻
34. 하만은 언제 제비를 뽑았나? 아하수어로 왕 제 12 년 (유다력으로) 첫째 달 곧 니산월 (에 3:7)
35. 하만이 제비로 뽑은 달은 무슨 달이었나?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에 3:7) ➡ 날과 달을 뽑았다고 했는데 날짜는 본문에 없다. 대신 13 절에 13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6. 하만은 아하수어로 왕에게 모르드개 사건을 어떤 식으로 아뢰었나?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진멸하여야 한다 (에 3:8-9) ➡ 유다 사람들이라 하지 않았음을 유의하자.
37. 하만은 아하수어로 왕으로부터 재가를 받기위해 어떤 방법을 택했나? 은 일만 달란트를 상납하였다 (에 3:9) ➡ 은 일만 달란트는 당시 바사 일년 재정의 3 분의 2 정도에 해당된다. 바사의 일만 달란트는 현재 도량형으로 약 343 톤에 해당하며 2020 년 4 월 30 일 은 시세 \$16.08/100 oz 로 계산하면 2 백만불이 채 되지 않는다. 당대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아하수어로 왕 초기에 이보다 거의 2 배가 되는 선물을 퇴했던 그가, 그리스와의 전쟁에 패함으로 재정이 쪼들렸기에 이를 받았다는 추측을 한다. 하만은 이런 큰 금액을 아마도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몰수(에 3:13)하여 복구하려 했을 것이다.
38. 에스더 3 장에 소개된 주요한 인물은? 하만
39. 하만의 흥계를 알게 된 모르드개의 반응은?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였다 (에 4:1) ➡ 굵은 베 옷을 입고 또는 재나 티끌을 뒤집어쓰는 것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 창 37:34, 왕상 20:32, 느 9:1, 사 37:1, 겔 27:30, 욥 3:6 등 참조. 모르드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40. 모르드개가 대궐 문 앞에까지 밖에 가지 못한 이유는? 베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에 4:2)
41. 모르드개의 상황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했나?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냈다 (에 4:4)
 ➡ 베옷을 벗기고 의복을 갈아 입게 하려 한 것은 모르드개를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자초지종을 직접 들으려고 한 것이다.
42. 에스더가 보낸 의복을 모르드개는 어떻게 하였나? 받지 않았다 (에 4:4) ➡ 여기서 모르드개가 왜 의복을 거부했는지 알 수가 없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4 장 이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시를 통하여 여러 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의아스럽다. 왕후가 거하는 후궁으로 들어갔을 때 생길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앴 것이 아닐까?
43. 에스더와 모르드개 사이에서 말을 전한 내시의 이름은? 하닥 (에 4:5)
44. 모르드개는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낸 물건은?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 (에 4:8)
45. 모르드개가 하닥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부탁한 일은?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 4:8) ➡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로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렸다 - 에 3:4 및 31 번 노트 참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구한다 함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혀야 가능하다. 따라서 왕의 조서대로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신과 민족의 생명이 전적으로 왕의 배려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46.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되나? 죽임을 당한다 (에 4:11)
47.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어떤 경우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왕이 금 규를 내밀었을 때 (에 4:11) ➡ 굉장히 어려운 단어 '규'가 나와서 개역 성경을 보니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규는 한자로 쇠인데 홀규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홀은笏인데 홀홀자라니 아주 피곤하다. 영어성경에는 scepter 로 되어 있는데 영한사전에 홀이라고 되어 있으니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다. 천신만고 끝에 찾은 이 두 글자의 뜻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이나 금으로 만든 노리개나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참고로 scepter 의 뜻은 'a rod or wand borne in the hand as an emblem of regal or imperial power'.
48.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아 왕에게 나간 지 얼마나 되었나? 30 일 (에 4:11)
49.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모르드개는 말하였나?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에스더의 집안은 멸망하리라 (에 4:14) ➡ 모르드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대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편으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이라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에스더에게 전했다.
50. 왕 앞으로 나아가 민족을 구하라는 모르드개의 전갈을 들은 에스더는 무엇을 부탁하였나?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아 나를 위하여 밤낮 삼 일을 금식하소서 (에 4:16) ➡ 금식과 함께 따라오는 기도의 부탁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표현이 빠진 것이 바로 에스더 서의 특징이다. 서두부분 정경성 언급 참조. 유대인들의 금식을 부탁한 에스더는 자신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다고 하였다.
51. 금식 후에 에스더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에 4:16)

52. 어떤 각오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로 하였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 4:16)
53. 에스더는 어전으로 나아갈 때 어떤 옷을 입었나? 왕후의 예복 (에 5:1) → 금식하는 동안 굵은 베옷을 입었을 것이다.
54. 에스더를 본 왕은 어떤 행동을 했나? 금 규를 내밀었다 (에 5:2) →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 노트 46 과 47 참조.
55. 에스더를 본 왕은 어떤 질문을 했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에 5:3) →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으니 필시 긴급한 일로 그리 한 줄 알아차린 것이다. 소원을 듣기도 전에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주겠다는 식으로 허락한 것을 보면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을 알 수 있다.
56. 소원이 무엇이냐는 왕의 질문에 에스더의 대답은 어떠하였나?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 5:4) → 왕후가 왕과 함께 다른 남자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파격적인 것이었다. 노트 12 번 참조.
57.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다시 물었을 때 에스더의 답변은? 내일 잔치에 하만과 함께 또 오소서 (에 5:8)
58. 잔칫날 하만이 나올 때 모르드개는 어디에 있었나? 대궐 문 (에 5:9) → 굵은 베옷을 이제는 벗은 것으로 보인다. 40 번 노트 참조.
59. 모르드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노한 하만에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무엇을 건의하였나? 50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소서 (에 5:14) → 모르드개의 그런 행동을 그 자리에서 하만은 참았다(에 5:10). 대궐 문에서 화를 내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60.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있던 날 밤에 왕은 무엇을 신하에게 읽게 하였나? 역대 일기 (에 6:1) → 당시 글을 쓰고 읽는 것은 특수한 임무로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에게만 주어졌다. 에 2:23 에는 궁중 일기라고 되어 있다.
61. 왕은 역대 일기를 듣고 무엇을 알게 되었나? 자신에 대한 암살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개 (에 6:2) → 25 번 노트 참조.
62. 하만은 왜 왕궁으로 왔나?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에 6:4)
63. 왕은 하만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나 (에 6:6)
64. 왕의 질문에 하만은 어떤 대답을 하였나?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왕관을 그에게 입히고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하소서 (에 6:7-9) → 우선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인줄로 알고(에 6:6) 그런 제안을 하였다. 여기서 왕복은 왕이 입었던 옷, 왕이 타는 말은 왕이 탔던 말을 뜻한다 – NIV 해당 부분 'a royal robe the king has worn and a horse the king has ridden'. 아무리 입었던 왕복과 탔던 말이라 하여도 왕의 허락 없이는 어느 사람에게 내어 줄 수가 없는 것들이다. 문제는 왕관인데 영어 성경의 해당 부분을 보면, NIV 'a royal crest placed on its head', KJV 'the royal crown which is set upon his head'로 되어 있다. NIV 의 경우 'it's head'로 되어 있어 앞에 나오는 말에게 씌웠던 일종의 관(crest)을 뜻한다. KJV 에는 'his head'로 되어 왕이 썼던 왕관(crown)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사의 관습에 왕의 말에 관을 씌우는 일이 없다는 점과, 아무리 왕이 높여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일은 없다는 점 및 후속 구절(에 6:9-11)에 왕관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들어 이는 원문의 오류로 본다.

65. 둘째 날 잔치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말한 소청(wish, petition)과 요구(request)는? (소청) 내 생명과 (요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 7:3) ➡ 여기서 '주소서'라고 번역된 부분은 NIV 에 에스더의 생명은 'grant - 허락하다', 민족의 경우는 'spare - 살려주다, 보호해 주다'로 되어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본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소청이었고 민족의 생명은 요구라고 한 것에도 에스더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었는지 엿보이는 대목이다.
66.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이 진멸 당하는 대신 노비로 팔렸더라면 어떻게 하였으리라고 했나? 잠잠하였으리이다 (에 7:4) ➡ 본문에서 에스더는 내 민족이 '팔렸다'고 우선 말하였다. 이는 하만에게로부터 은 1 만 달란트를 받기로 한 사실을(에 3:9) 왕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내 민족'이라 말함으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는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같은 뜻으로 3 번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왕의 조서에 있는대로(에 3:13) 말한 것이다 - 에스더는 조서의 초본을 모르드개로부터 받아서(에 4:8) 그 내용을 이미 상세히 알고 있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에 대한 해석이 좀 난해하다. 그 이견은 영어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 NIV 'because no such distress would justify disturbing the king', KJV 'although the enemy could not countervail the king's damage'. KJV 의 보수적인 번역, 즉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하만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뜻이 한글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바로 앞에 나오는 '잠잠하였으리이다'에 대한 설명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견해와 원본의 모호성을 들어 NIV 의 번역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린 정도로는 왕을 귀찮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
67. 하만의 음모를 알아차린 왕이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만은 어디에 어떻게 있었나?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에 7:8) ➡ 걸상은 당시 바사 풍습으로 식사할 때 비스듬히 옆으로 반쯤 눕는 소파를 뜻한다 - 이런 풍습은 로마나 그리스에도 있었다. 하만은 에스더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느라(에 7:7)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애걸복걸한 모양인데 어떻게 에스더가 앉았던 걸상에 엎드려져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68. 에스더의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하만을 본 왕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는 줄 알았다 (에 7:8)
69.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 했다는 말을 왕이 하자 무르들은 하만에게 어떻게 했나? 하만의 얼굴을 찼다 (에 7:8) ➡ 당시 죄인의 얼굴에 보자기 같은 것을 씌워 왕의 얼굴을 못 보게 하였다.
70. 하만의 최후는 어떠했나? 모르드개를 달려고 세웠던 나무에 자기가 달렸다 (에 7:9-10) ➡ 내시 하르보나는 왕후 와스디에게 갔던 7 내시 중 한 명이었다 (에 1:10). 에스더가 베포 둘째 날 잔치에 하만을 부르러 그의 집으로 갔었고(에 6:14) 그 때 그의 집에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 이를 왕에게 고하였다.
71. 하만을 처형한 후 왕은 하만의 집을 어떻게 하였나?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 8:1)

72. 하만의 집을 하사 받은 에스더는 어떻게 하였나? 모르드개와의 관계를 왕께 아뢰었다 (에 8:1)
73.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관계를 알게 된 왕은 모르드개에게 무엇을 주었나?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주었다 (에 8:2) ➡ 왕의 조서에 인을 치라고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이다 (에 3:10-12).
74. 하만의 처형 후 에스더가 왕에게 구한 것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내린 왕의 조서를 철회 하소서 (에 8:3-5)
75. 왕은 하만을 통해 내린 조서를 철회하였나? 철회하는 대신 새로운 조서를 내리기를 허락하였다 (에 8:8) ➡ 그 이유는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인을 쳐서 내린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새로운 조서를 유다인들에게 내리기를 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에스더의 뜻대로 쓰라고 하였다.
76. 새로운 조서는 누가 시키는 대로 작성되었나? 모르드개 (에 8:9)
77.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12 월 13 일 하루 동안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였다 (에 8:11-12) ➡ 그 내용은 하만이 내렸던 조서와 같은 날에(유대력 12 월 13 일) 유효한 같은 내용으로 그 공격의 대상이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의 대적으로 바뀌었다 (에 3:13).
78. 새로운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된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 (에 8:17) ➡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79. 12 월 13 일에 유대인이 도성 수산에서 진멸한 대적의 수는? 500 명 (에 9:6)
80. 유대인은 하만의 아들 몇을 죽였나? 10 명 (에 9:10)
81. 왕의 조서에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지 않은 것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에 9:10)
82. 왕의 물음에 에스더는 어떤 새로운 소청을 왕에게 말하였나? 내일도 수산에서 오늘 같이 하게 하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에 9:12-13) ➡ 모르드개는 수산에 아직도 많은 대적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에스더에게 그런 요청을 하도록 귀띔한 것 같다.
83. 지방에서 진멸된 대적들의 수는? 75,000 명 (에 9:16) ➡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 14 양일간에 그 일을 하였고 15 일에 쉬고 잔치를 베풀었으며, 지방에서는 13 일에 그 일을 하였고 14 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었다 (에 9:17-18).
84. 바사의 유대인들이 대적을 진멸한 일을 기념하여 제정된 절기의 날짜와 이름은? 아달월 14 일과 15 일, 부림절 (에 9:21, 26-27) ➡ 부림절이라는 이름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부르 즉 제비를 뽑아 결정한 일에(에 3:7) 연유한다.